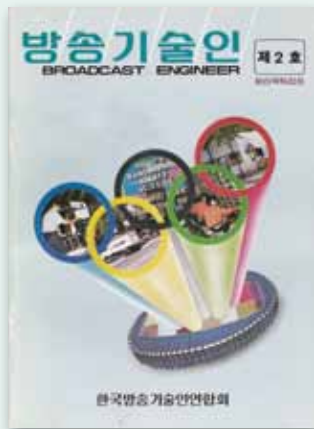


응답하라 ‘방송과기술’ - 6



1988년 10월 발간된 올림픽특집호

올림픽방송 취재현장 특집



Rio 2016 31회 하계올림픽이 개최되는 8월입니다. 많은 방송기술인들이 세계인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중계하기 위해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땀을 흘리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28년 전 서울에서 개최된 88올림픽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기술인들의 뜨거웠던 열정과 사명감을 우리 모두가 다시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28년 전과 지금의 중계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궁금하네요.

-편집자주-

올림픽방송의 현장을 가다

1988년 9월, 서울의 하늘은 별나게 푸르고 눈 시리다. 골목 골목에서 흑·백·황 등 화려한 인종의 박람회가 펼쳐지고 가슴마다에 오륜의 감동이 술렁인다.

어느 한구석 모자란데 없달 만큼 푸지고 신명나는 잔치 마당, 그 뒷전에도 어김없이 표나지 않게 땀을 쏟아붓는 이들이 있गे 마련인지, 아마도 방송기술인들을 그 축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30억 지구촌 시·청취자들의 안방을 올림픽 현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분명 위대한 작업이다. 그 위대한 작업에서 Broadcast Engineer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야말로 참으로 크고 넓적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한창 달아오르고 있는 서울올림픽 방송의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9월 29일 잠실 메인스타디움, 트랙과 필드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기록이 속출하고 숨 막히는 결전의 순간을 지켜보는 관중석의 열기 또한 무던히 뜨겁다. 그 틈에 섞여 선수들의 동작 하나, 관중들의 박수소리 하나까지 알뜰히 끌어모으기에 여념이 없는 SORTO(편집자 주 : 서울올림픽 방송실시본부, 서울올림픽 주관 방송사로 지정된 KBS가 MBC와 함께 1982년 설립) 요원들을 만나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트랙과 C.C.R(편집자 주 : Commentary Control Room)에서 막 장비와 회선 점검을 끝내고 난 유강석 씨가 어렵사리 짬을 냈다.

“해설박스와 헤드세트, 회선 등을 점검하는 일은 하루에 서너 번씩 되풀이됩니다. 대개 그렇듯이 오늘도 “이상무(異常無) 모든 것이 탈 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가 아닙니다. 달리기, 던지기, 뛰기 등 경기는 쉴 새 없이 계속되고 국제신호로 제작된 그 모든 순간들이 고스란히 이곳을 통해 IBC로, 또 세계로 날아간다는 사실이 CCR의 식구들을 24시간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하나같이 눈과 귀를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듯했다.

세계 125개 나라의 PD와 아나운서와 해설자들이 저마다 높은 목청으로 경기를 중계하는 해설자석 언저리에서는 종종 웃지 못할 해프닝이 연출되곤 한다는데, “처음부터 기계가 없는 자리를 예약했던 모로코 방송국은 개막식 당일에 와서야 착오를 발견하고 기계를 달라고 발을 구르는가 하면, 한국의 방송기술을 불신한 나머지 일본 중계차를 빌렸던 영국의 한 TV방송사는 중계차가 잦은 말뚝을 일으키자 우리 기술자의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달리기를 연습하던 한 흑인 선수가 심판이 실격을 선언하자 “What shall I do?”를 외치며 CCR로 달려와 막무가내로 항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사소한 주문들이 끊임없이 들어온다. 그때마다 가능한 한 모든 호의를 베풀면서 우리 방송기술의 높은 수준에 대한 긍지와 주관 방

송사 요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거듭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칭찬에 인색하다는 기술 선진국의 방송인들까지 최고의 시설과 첨단 장비와 짜임새 있는 운영,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송의 질이 나무랄데 없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을 때, 그 한 마디에서 겹겹이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가신다고 한다.

“그래도 노독이 남으면 경기장 지붕 너머로 찰랑찰랑 넘치는 푸른 하늘에 대고 멋지게 한 번 웃고 말지요.”

그는 웃었다.

주경기장 CCR에는 24명(단기 요원 16명 포함)의 기술요원이 매달려 있다.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135개나 되는 해설자석과 그에 따른 방송 회선들을 관리하기에 충분한 숫자는 아닐 것이다. 때문에 너무나 많이 두 뉘, 세 뉘의 힘과 정열을 쏟아야 할 참이다.

송효중 씨,

“아침 7시. 잠을 털고 나와 그날치의 경기가 모두 끝나는 한밤중까지 경기장에 머무는 시간이 줄잡아 열일곱 시간. 국제신호가 송출되는 시간만 꼽아도 하루 O(편집자 주 : 오타인 듯합니다.) 시간이 넘습니다. 내내 신경을 곤두세운 채 긴 시간을 버티면서 방송이야말로 선수들의 메달 경쟁 못지않게 올림픽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을 올림픽 현장으로 만드는 일에 작은 힘이라도 보탬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 것은 차라리 가슴 벅찬 행운인지 모릅니다. 유사 이래 가장 웅대하고 화려하다는 올림픽 개회식이나, 칼 루이스와 벤 존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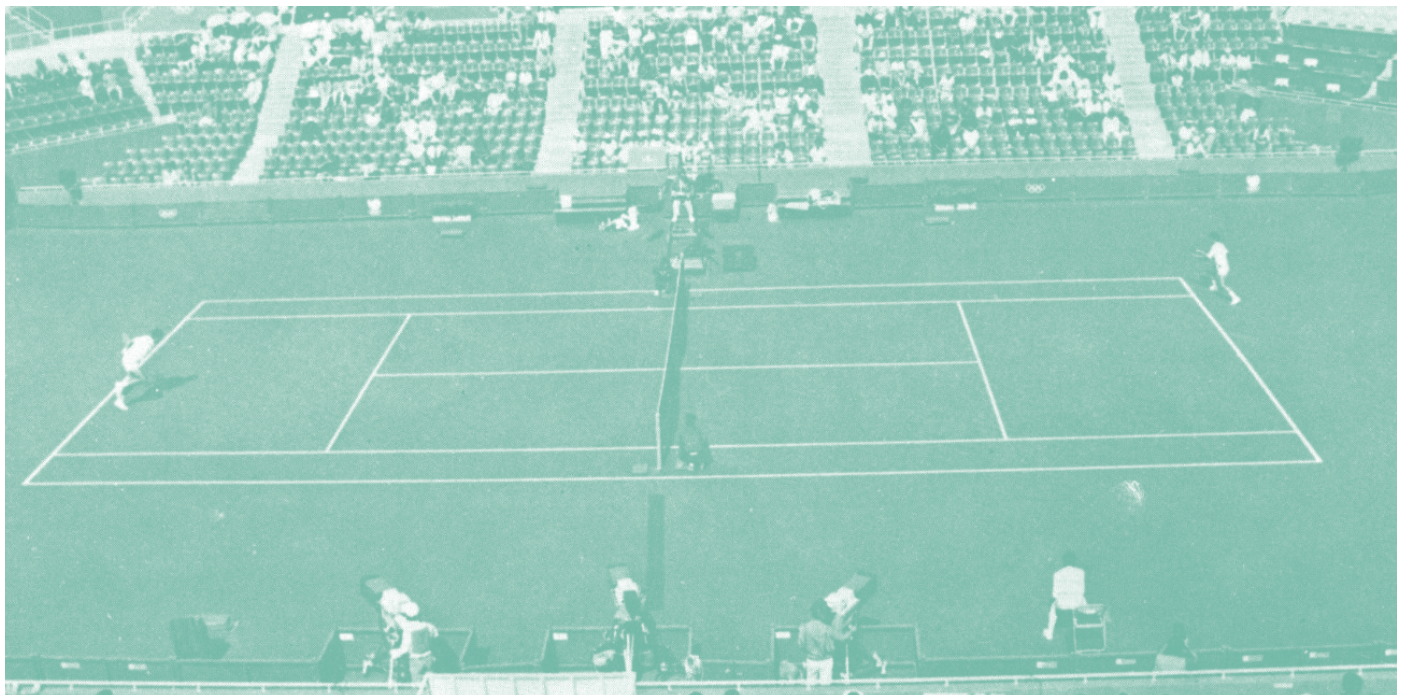
이 펼치는 세기의 대결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도 더없이 값진 보너스였습니다.”

송효중 씨는 개폐회식 시연회가 있던 날, 비표발급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문간에 발이 묶여 있다가 끝내는 방송을 못 하고 말았던 일이나, 방송석까지 입장권을 발행하는 누군가(?)의 물지각으로 장비들을 간수하느라고 곤혹을 치르던 일만 아니라면 감동이 몇 곱은 더 컸을 참이라며 아쉬워했다.

올림픽 방송은 지금까지 해오던 중계업무와 처음부터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TV 생방송 화면과 배경 음향을 국제신호로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모든 나라에 제공할 책임 한 가지를 더 짊어졌다는 점만 해도 그렇다. 동대문운동장에서 최천규(MBC TV 중계부) 씨를 만났다.

“이곳에서 지금 축구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경기를 아프리카의 어느 집 안방에서 지켜본다고 할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선상태의 안정일 것입니다. 자연히 화선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서울올림픽 방송에 참여하는 기술요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게 주어진 임무이기도 합니다.”

해설자석과 CCR 등 설계나 시설은 빈틈이 없었고 준비 또한 철저했다. 100% 안전을 확신하기에 충분했으나 그렇다고 방심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사고는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같은 가능성을 기우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현장에서 IBC로 통하는 구간의 선로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은 하루 2~3회씩 계속된다고 한다.



“조바심 덕인지 실제로 중계가 진행되는 동안 회선에 관한 한 어떤 문제 나 사고도 생기지 않았습시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올림픽에 걸맞은 최상의 방송을 위해서 주어진 만큼의 책임은 다한 셈입니다.”

축구를 포함해서 MBC가 국제신호 제작을 맡은 8개 종목 가운데 또 다른 하나가 한양대 체육관의 배구. 카메라 8대와 Commentary position 45석 30명의 기술 요원이 뛰고 있다.

체육관 문 앞에 MBC 중계차와 미국 NBC 중계차가 나란히 서 있다. 덩치에서부터 위압감을 풍기더니 때때로 근거 없는 우월감까지 발동을 한다. “우리 Signal을 그쪽에서 받아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처음 며칠 동안 영상을 자기네 Colour에 맞춰 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오더군요. 물론 점잖게 거절을 했습니다.”

김철동 기술감독이 들려준 얘기다. 그는 우리의 방송 기술수준은 이미 그

들에게 불신을 당할 이유가 없을 만큼 높이 올라 있다고 강조한다.

“처음에는 VMU가 다소 노후된 탓에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그림에 조그만 흠집이라도 생기면 저희는 그 한 Cut 한 Cut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다 보면, 경기가 끝난 뒤에 어느 팀이 이겼는지 옆 사람에게 묻기 일쑤지요. 그렇게 하루 네 게임씩 Cover하고 나니까 배구중계에는 자신이 생겼으며 Slow-mo나 CG, Commentary 등 시설장비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오전 경기가 끝나고 오후 경기가 시작되기 전, 그 한두 시간 사이에 점심을 해결하고 앉은 채로 모자라는 잠도 보충을 하면서 하루 열일곱 시간 이상을 현장에서 보내는 강행군의 땀가로 충분한 보상일까.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장애인 올림픽까지 끝내고 나서야 그들 모두 한시름 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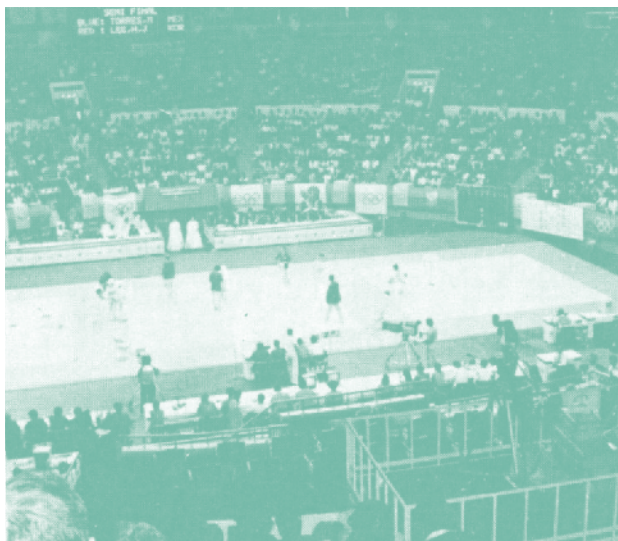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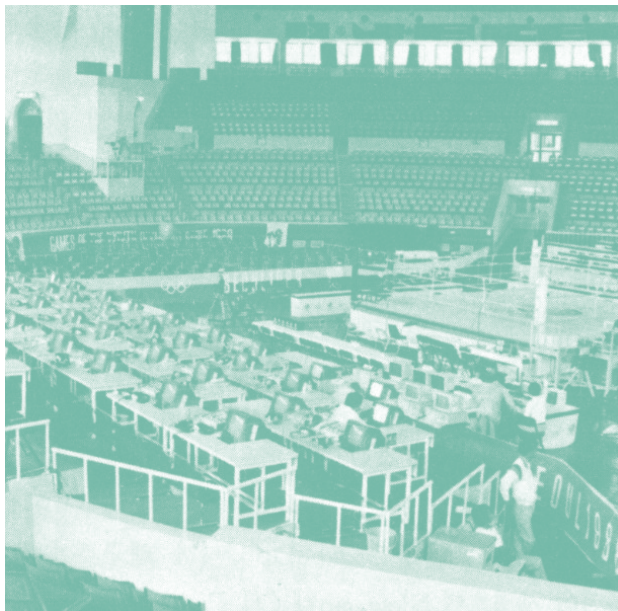
세계 최강의 핸드볼팀을 가리는 열전의 무대 수원 실내 체육관. 환희와 좌절이 교차되고 함성과 비탄이 뒤 섞여 체육관은 여러 날째 이렇게 들썩거리고 있다.

무대 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모든 순간을 카메라와 마이크에 담아내는 방송 올림픽의 열기 또한 무척이나 뜨겁다. Studio 내에서 이루어지는 녹화방송과 달라서 한번 놓친 장면, 한번 놓친 소리는 결코 다시 연출할 수 없다거나, 장비나 시설에 하찮은 고장이라도 생길 경우 여지없이 방송 사고로 직결된다는 긴박감을 전 기술요원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다고 김종철 씨는 귀띔한다.

올림픽을 경기장 내에서 지켜보는 눈은 많아야 몇만이나 수천만 국민이, 아니 수십억 세계인이 방송을 통해서 감동을 맛보며 하나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의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 얹혀 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전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행사를 번듯하니 치르기 위해 알게 모르게 감수해야 할 자기 희생도 있었으리라. 과연 올림픽 방송이라는 것에 이렇게 온 시간과 노력을 쏟을 만한 일인가 스스로에게 되묻곤 한다는 김종철 씨.

“한 달 가까이 집을 떠나서 생활한다는 것은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으로서 적지 않은 고통이었습니다. 먹고 자는 데서 느끼는 불편은 그렇다 하고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은 인내하기 어렵더군요. 관중들은 경기를 지켜보면서 소리 높여 응원도 하고 승리의 감격을 맛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는 그만한 여유조차 없습니다.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나’는 없고 ‘방송’만 있는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큰 만큼 보람도 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일약 세계적인 수준의 방송기술을 쌓아 올리는데 일



조할 기회를 갖게 됐으니까요. 방송기술인으로 일해 온 10년 세월의 결실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비단 그 혼자만이 느끼는 고충이요, 보람은 아닐 것이다.

성남 하키경기장에서 보수 담당자로 올림픽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김경환 씨에게도 요즘은 무척 어렵고 고된 나날이다. 아침 6시에 경기장에도 착, 전원을 넣고 기계를 가동시키는 데서 그의 하루 일과는 시작된다.

“밤새 탈은 없었는지 점검을 하고 나야 국제신호의 송출이 시작됩니다. 만일 이상이 발견될 경우 눈에는 불이 켜집니다. 비상! 비상! 있는 기술 없는 기술에 순발력까지 동원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8시 55분 전에는 시원스레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사소한 고장은 몇 번 있었으나 아직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성남 하키경기장에서는 하루 보통 네 차례 경기가 벌어진다. 정상적으로 끝날 경우 4시 30분이면 장비들을 철수하게 되는데 다른 경기장과 달리 한 게임이 끝날 때마다 구장에 물을 뿌리기 때문에 군데군데 설치해 놓은 마이크를 짓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한 가지 일이 덤으로 주어진다.

기술요원의 일이 까다롭기로는 조정과 커누 경기장이 단연 첫째, 아니 적어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것이다. 때문에 인원과 장비가 다른 경기장보다 많이 투입되긴 했지만 어렵사리 해결된 문제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게 이상운 차장의 설명이다.

“조정이나 커누의 경우 2000m에 달하는 구간에서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어떻게 하면 출발점에서 끝인점까지 영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깨끗하게 Cover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이동 중계차가 제 몫을 톡톡히 해냈고 효과음의 수음 문제도 이동 중계차의 짐승 마이크로 해결하는 한편,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250m, 500m, 1000m, 1500m 중간 중간에 그리고, 본부석에 보조 믹서를 설치해 노 젓는 소리, 선수들의 구령소리, 관중들의 박수소리 까지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사전에 Communication의 중요성을 인식, 쌍방 통화가 가능한 엔지니어 전용 회선을 구성해서 프로그램 제작에 심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한다. 그렇게 빈틈없는 준비 작업이 선행되었기에 큰 장애 없이 순탄한 행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들 한 점, 물 천 방울이 아쉬운 미사리 허허 벌판에서 진땀 꽤나 흘리며 준비해온 올림픽 방송이다.

Commentator Control Room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문식(KBS 춘천총국) 씨는 경기가 시작된 후보다 오히려 그 준비과정의 고되고 힘겨웠으며 SLOOC(편집자 주: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의 행정적 지원이 제대로 뒤따르지 않아 못내 아쉬웠다고 한다.



“8월 16일부터 현장에 나왔습니다. 새로 조성되어서 그야말로 벌판에 거대한 인공호수만 놓여있다 뿐, 편의 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경우 숙식문제를 푸는 것조차 큰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복 6km에 가까운 거리를 걸어야 현장에 닿고, 라면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등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다. 왜? 그 대답은 올림픽 현장에서 동분서주 뛰고 있을 모든 방송기술인의 마음 속에 있을 것이다.

미사리에서, 주경기장에서, 수원과 성남에서, 배구경기장에서, 또 다른 구석구석 결코 빛나지 않는 그늘에서 방송기술인 그들의 사명감은 뜨겁게 뜨겁게 불타고 있다. 